

중국의 제3기 시진핑 체제와 국제질서 그리고 한반도

KDI 북한경제연구실은 2023년 3월 8일에 중국의 정치·경제·외교·사회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중국의 주변 정세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일시 및 장소

2023년 3월 8일(수) 오후 4시, 더 플라자호텔 비즈니스센터

사회

이석 선임연구위원(KDI)

토론

김진호(단국대학교),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재우(경희대학교)



이석: 우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KDI 북한경제리뷰는 북한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주제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달에는 우리가 주목할 매우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그 이슈는 바로 현재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중국 시진핑 주석의 제3기 체제 출범'이다. 물론 금번 협의회를 진행하는 오늘도 중국의 양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결국 양회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청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KDI 북한경제연구협의회와 함께 작성해 주실 특별 칼럼을 통해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은 제3기를 맞이한 시진핑 체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한반도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중국의 양회는 언제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 정치 사건이었지만, 올해 진행되는 양회는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3기 시진핑 체제의 출범은 덩샤오핑 이후 우리가 중국 지도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이해, 다시 말해 최고 지도자는 두 번까지만 연임하고 차기 지도자에게 넘긴다는 상식이 파괴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두고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중국이 시진핑 주석 1인 독재체제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대외적인 환경 역시 오늘의 중국을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변수들의 상호작용은 국제질서에 변화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듯 국제정세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당장 한미일 협력문제, 북한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마주하고 있다. 중국의 향후 움직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우선 주재우 교수님께 중국 제3기 시진핑 체제의 구성과 특징 등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주재우: 우선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시진핑 3기 체제의 미중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미외교 기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부 사정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 부분은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진핑 3기 체제가 진행되는 5년 중, 2025년 전후에 한 번의



분기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년 1월에 대만 총통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대외적인 이유로 내년 연말까지는 미중간에는 치킨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양국의 경쟁은 매우 격렬하게 흘러가다가 2025년도 1월에 양국 간 어떤 형식과 정도로 관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조 바이든의 2기가 시작되든, 공화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든, 미국에는 신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새로운 미국정부가 들어서는 2025년도 1월은 시진핑 3기 만료 2년 전(2027년)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4연임을 고려한다면, 올해부터 첫 2년은 미국과의 경쟁 구도로 간 다음에 자기의 잔여 임기 내 중국의 경제회복이라는 목표를 이루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중국이 리오프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한다고 하지만, 중국의 경제전망이 장밋빛 청사진은 아닌 듯하고, 당대회 보고나 이번 양회 공작보고를 살펴보면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중국 지도부 역시 그걸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잔여 임기 동안에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다. 그러면 조 바이든 2기가 됐든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됐든 뭔가 좀 협의를 해보려는 모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석: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주재우 교수님께서서는 ‘시진핑 3기 체제 중간 시점’에 한번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셨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신 행정부가 들어서는 2025년 이전까지는 미중간의 경쟁이 격화되다가 그 이후에는 미중 사이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물론 이는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이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셨고, 경제문제 역시 이러한 흐름의 종속적 특징을 띠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다. 다음으로 박병광 박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병광: 우선 전반적으로 시진핑 체제와 국제질서 측면에서 시진핑 3기의 중국 대외 정세에 대한 외교 양태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외교 행태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한다. 첫째,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이다.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에 따라서 안정적인 대내외 정세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질서와 정세의 변화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핵심은

미중관계이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린 중국의 국가발전 목표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큰 변화가 없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몽(中國夢)'에는 흥국몽(興國夢), 강군몽(強軍夢), 통일몽(統一夢) 총 세 가지의 꿈이 있다. 첫째, 흥국몽은 나라를 발전시키고 흥성하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강군몽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미군에 필적하는 군대가 되는 것이다. 셋째, 통일몽은 대만과의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는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를 기한으로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이에 좀 더 구체적인 시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국가발전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데 기여하는 게 중국 외교의 목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국가발전목표에 따른 안정적 대내외 정세 확보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 목표는 국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으나,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데 가장 큰 변수는 대내외 정세라고 생각합니다. 정세는 우리가 마음대로 주도하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외정세의 변수를 고려할 때 미중관계가 제일 큰 작용을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중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시진핑 3기에도 미중관계에서 경쟁과 대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정부는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미중관계를 유연하게 가져가고 싶어 했으나, 정찰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중국이 미국에 의도했던 바를 밀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도전을 굴복시키는 게 미국의 목표이므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미국 조야는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목표와 인식이 큰 변화가 없다. 미국은 향후 10년의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국가안보전략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양회기간 중국 지도부들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억제, 포위, 강압을 통해서 중국의 발전에 전혀 없이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다’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을 했다. 또한 친강 외교부장도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미국을 수십 번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와 태도로 미국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공세적 외교 행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미중관계 이외에 역내 질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중국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을 따라잡는 세계 패권국이 되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역내 패권국 내지 역내 주도국가가 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패권국들은 일거에 패권국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먼저 주도국이 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향력을 확대해서 세계 패권국이

됐다. 역사가 증명하듯 중국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먼저 주도국이 되어야 하는데, 일본이 가지 같은 존재로 남아 있다. 중국은 이미 역내에서 일본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추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새로운 전략인 인태전략, 퀴드 등으로 인해서 일본을 따라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와 인태지역에서 아직까지도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의 벽에 막혀있는 상황에서 중일관계까지 미중관계와 점점 동조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것이 중국에는 상당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시진핑 3기의 외교를 살펴볼 때 중국의 주변 안보정세는 ‘사해(四海) 문제’의 불안정이 지속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남중국해(南海), 조어도를 둘러싼 동중국해(東海), 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의 대해(臺海), 한반도와 관련된 서해(黃海) 등 4개 해양지역 관련 문제가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안보위기 요소이기 때문이다. 시기에 따라 사해에서 미중간 충돌의 가능성이 달랐는데, 최근에는 대만문제가 가장 격화되어 미중 격발의 가장 중요한 지뢰밭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직결된 부분으로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하다. 제20차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지속하느냐, 아니면 유연한 태도로 변화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이번 양회 기간 중 시진핑 주석, 리커창, 친강 등의 대만문제에 대한 언급을 살펴봐도 알 수 있고 둘째, 작년 8월 펠로시 미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이어 올해 취임한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도 대만 방문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대만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물론,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석: 박병광 박사님은 시진핑 3기의 중국의 전반적인 외교 추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연함 보다는 강경함이 대두될 것으로 보셨다. 국제적인 질서에서 미중갈등 문제나 지역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문제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안보문제를 설명해 주셨다.

김진호: 저는 시진핑 3기 이전의 중국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사상체제 통일을 위한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재미 중국 언론인 또는 학자들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미 3기에 들어오기 전에 사상체제를 통일시켰다고 주장한다. 시진핑 사상이 등장하기 전, 적어도 지난 10년간 방송을 통한 사상교육을 진행하였고, 당시 어린이들은 그것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시진핑 주석을 지키는 민족주의 정서가 깊은 젊은 청년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의법치국(법으로 국가를 다스린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당을 장악하였다. 이것은 ‘심화개혁’이라는 말로 중국에서 역대 지도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 사용하던 방식과 같이 개혁개방의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부패와의 사슬을 끊는다는 미명으로 부정을 한 공무원 등을 법으로 다스림으로써 공산당이던 인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기 위한 ‘통치정치’였다.

다음 문제는 향후 시진핑 체제의 정치 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국이 미국과의 대립각을 국내정치에 활용할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강경 기조를 너무 세게 가져간다면 오히려 국익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5%의 성장률 목표를 밝혔는데, 이 목표치는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성장률 목표를 더 높이 잡았다가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민이나 대외적으로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재우: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시기 중국의 외교 기조는 박병광 박사님, 김진호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다. 제 생각에도 중국의 외교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과거 2012년도부터 시작하여 특히 2017년도 제19차 당대회 때부터 중국은 미중관계를 체제경쟁 속으로 몰고 갔던 것 같다. 시진핑의 중국은 사회주의 완성을 위해서 미국과 체제경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체제경쟁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 목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어느 정도는 누그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예상하는 근거의 중심에 반도체문제가 있다. 미국은 앞으로 미래첨단 상위기술에 들어가는 반도체 및 기술 이전 문제까지를 통제하겠다고 입장인데, 이는 중국 입장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석: 말씀 감사하다. 세 분 박사님께서 제3기 시진핑 체제의 외교기조에 대한 전망과 함께 미중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다. 다음으로 시진핑 3기의 인적 구성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진호: 3기의 인적 구성은 과거 1~2기와 확실히 비교된다. 지난 1~2기 때까지는 ‘시진핑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성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부족하여 당내 다양한 파벌에 대한 완전한 장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3기는 다르다. 지난 당대회 때 당의 직위에 대한 개편 작업을 마쳤고, 이번 양회를 통해서 행정체계의 개편 및 인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진핑 3기는 완전히 ‘시진핑의 사람들’ 일색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분석하는 것이 주류적 시각이다.

주재우: 추가 말씀드리겠다. 정부 요직은 서열에 따라 국가 주석부터 시작해서 부주석 등이 모두 선출된다. 북한경제연구협의회가 진행되는 현재 아직 그 선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선거를 통해 시진핑을 국가주석으로 뽑으며 인적 구성을 완료할 것이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당 상무위원회 7명의 면면을 보게 되면 모두 시진핑 주석의 심복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인적 구성만 보더라도 저는 장쩌민 시기부터 후진타오 시기까지 작동되던 집단지도부 체제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인적 구성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을 지난 당대회 때 확신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후계자 구도를 가려면 일단은 중앙 당서기처에 제1서기로 임명이 된 다음, 그 사람이 동시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직, 중앙당교 교장을 겸임하는 것이 관례였다. 후진타오, 시진핑 모두 같은 절차 경로를 밟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 직위에 겸임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들로 인적 구성을 한 것을 고려하면 후계 구도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제1서기직은 중앙당교 교장까지 겸임을 했던 과거와 달리, 중앙당교 교장도 새로운 인물이 맡게 되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을 위한 포석구도는 완료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박병광: 이번 새로운 지도부 인선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과거에는 최고 지도부 내에서 각 파벌들이 상무위원을 나눠 가지면서 권력 분점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양회는 이른바 집단지도 체제가 퇴보하고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완벽히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자리였다는 것이다. 우선 시진핑 주석은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당 총서기 이 3개를 완전히 장악했다. 앞서 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임 지도부 권력 재편과 관련해서 인적 구성이 시진핑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결국 시진핑 주석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명실상부한 입지를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다.

인적 구성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커창의 뒤를 이어 국무원 총리 자리에 앉게 될 리창은 2002~07년 시진핑 주석이 절강성 당서기였던 시절에 절강성 당위원회

관공청 주임을 맡았던 인물로, 당시 시진핑 절강성 당서기의 비서실장이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절, 리창은 상하이시 당서기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 관리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리창을 당 권력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로 앉히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권력 3위는 자오러지라고 하는 인물이다. 자오러지는 산시성 당서기 출신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권력 4위는 시진핑 주석의 책사로 불리던 왕후닝으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맡는다. 저는 추가로 왕후닝이 맡은 정치협상회의를 강조하고 싶다. 왕후닝은 과거 경험이나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등을 보았을 때 매우 특수한 인물이다. 정치협상회의는 기구의 공식적 대외적인 성격은 국정 자문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일전선 공작을 관할한다. 통일전선 공작이란 對해외 영향력 확대, 화교 문제 등을 다루고, 왕후닝은 특히 이번에 대만문제를 또 관할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는 이번에 왕후닝이 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가기 전, 올해 1월에 31개 성시에 대한 지방정치협상회의 수장을 모두 교체했는데, 그중에서 30명이 1960년대 생이고, 또 그중에 세 명은 196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유능하고 젊은 사람들로 지방정협 주석을 바꿈으로써 정협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왕후닝이 간 것과 맞물려서 정협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될 것을 암시한다고 본다. 특히 대만문제, 통일전선 공작 등 복잡해지고 있는 중국의 국내외 상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서 인민들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권력서열 5위의 자리인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는 차이치가 맡는다. 그리고 권력 서열 6위에는 덩쉐샹이라는 인물이 자리하게 되었다. 덩쉐샹은 시진핑 주석이 당 총서기 및 국가주석 시절 당 중앙관공청 주임으로 시진핑 주석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었으며, 이번에 상무부총리를 맡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상무위원 권력 7위는 리시로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게 된다.

이석: 자세한 설명 감사하다. 주요 인적 구성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맞이하게 될 또는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도전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김진호: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된 국내외 이슈들일 것이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애정은 미국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비해서 중국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아직은 투자한 것에 비해 얻은

성과는 부족한 점이 많다. 반도체는 소부장 외에 가성비 그리고 시장성이 필요한데, 중국 반도체는 경쟁력에서 세계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아직 내수용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봉쇄된 시장에 국가관계상의 지원과 같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반도체 기술력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중 격차는 20년에서 30년까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이 반도체는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기반이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내놓은 반도체협정에서도 반도체를 군수용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옵션을 내걸었다. 미국 의회에서는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간주해서 주관부서를 국방부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상황인데, 사실 중국 입장은 반도체 문제만 해결되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반도체 이슈는 경제안보 이슈로까지 확대되며 결국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양안(대만)문제 및 한중관계와도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재우: 앞서 김진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도체협정에는 반도체를 미군에 우선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 반도체협정과 관련된 초안은 이미 작년 미국 의회에서 준비되었고, 현재 국제정세를 두고 볼 때 '반도체 안보(semiconductor defence)'라 불릴 만한 부분이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면서 이 법안의 초안이 나온 것이다. 작년 12월에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지금 미 상무부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전의 통제권을 국방부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항간의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시도했을 때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지만,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결국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간주해서 국방부로 옮기는 문제가 올 해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다.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어 2025년을 맞이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등 협력이 가능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며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외교안보 전문가의 입장에서, 반도체 공급망부터 시작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국가인 한미일 3국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중국 입장에서 제일 위협적인 요소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한미일의 3각동맹, 3자결합은 중국에 상당한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 같다.

박병광: 기본적인 경제성장을 끌고 온 원동력이었던 민간기업의 투자 및 유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경제가 발전하는 데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민간기업 및 해외 투자였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반대 방향으로 퇴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국영기업이 나아가고 민영기업이 퇴보한다는 뜻으로 ‘국진 민퇴’라는 표현을 쓴다. 그동안 중국을 대표하는 창의적 희망의 기업으로 알려졌던 텐센트나 알리바바의 수익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결국 중국을 이끌어가던 경제의 주요한 동력인 민영기업의 퇴보를 방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리커창의 정부공작보고에 보면 민영기업에 대한 유화 메시지가 많이 나타난다. 민영기업의 투자 및 투자 유치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중국경제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본궤도에 올라가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에서 자생적으로 나왔던 기술 대기업에 대한 투자와 보호, 또 지원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미중관계와 경제안보 문제는 중국이 맞이할 핵심문제 중에 핵심이다. 지난 12월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전문가들은 경제안보가 미중관계의 핵심이라고 했다. 미국의 인식을 통해 앞으로 공급망 재편과 탈동조화가 중국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다가갈 것일지 심각하게 생각해 할 것이다. 중국은 기술의 자립자강을 외치며 자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돌파하겠다고 하고 쌍순환을 강조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는 쉽지 않다고 본다.

김진호: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공고하게 만든 콘크리트 구조 같은 정책 결정라인과 시진핑 주석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 결정 구도에서, 엘리트 집단에 의한 정책 결정상의 유연성 부족에 의해 오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나름의 견제구조가 있었다. 중국정치는 지도부 내 기존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속한 각 파벌이 경쟁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균형을 이뤄 이를 중국식 당내 민주화라 소개해 왔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이 모든 시스템이 사라지고 모두 위만 바라보는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로 바뀌면서, 이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시진핑 주석 중심의 인적 구성은 타국의 권위주의 정부 때와 같이 정책 결정의 경직성과 내부 권력투쟁으로 전체 사회와 국내정치와 및 대외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중국의 대만 문제에 관한 판단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석: 김진호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굉장한 인사이트라 생각한다. 앞에서 반도체에

대해 잠시 언급되었는데, 이번 양회를 통해 본 중국경제에 대해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요즘 중국경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최근 모 일간지는 중국정부가 미국 및 서유럽의 주요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중국에서 회수하려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양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구성을 살펴봤을 때 중국의 IT, 빅데이터, 배터리 등 분야의 기업 오너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관련된 면면을 새롭게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

주재우: 중국이 이번 양회를 통해 발표한 경제성장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5% 좌우(左右)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매우 흥미롭다. 중국어로 좌우(左右)란 안팎, 전후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경제성장률 5% 좌우(또는 5% 전후)라고 명시하였다. 제 기억이 맞다면 중국이 목표치를 정할 때 좌우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한 표현만 보더라도 중국도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은 양회 공작보고서에 처음으로 달러 패권을 명기하였다. 이번 공작보고서에서 외교, 국방, 대만 문제에서 미국 요소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달리, 경제분야에 대해 집중 언급한 것을 통해서도 중국이 경제부문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박병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현재 일련의 조치가 굉장히 강화되고 상승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FRB 문제까지 매우 광범위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공작보고서의 경제 부분에서 언급되었다고 본다.

김진호: 저도 향후 중국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본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중국이 실시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새롭게 생기고 굳어진 관성을 벗어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3년의 경험은 중국인들의 생활습관, 소비 패턴 및 식습관 등에 변화를 주었다. 그 결과 중국인들 스스로 과거처럼 소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이 점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각국 정부는 국민의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창출하고 단기적 경제발전을 도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국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취업률도 제고시켜야 하는데, 이는 산업생산 및 수출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계속해서 내수와 수출이라는 ‘쌍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수출 규모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전만 못하고, 미국의 각종 제제도 폭넓게 받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 3년 전의 세계 경제를

이끌던 국가의 면모를 찾아가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도 쉽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둘째,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수많은 경제 후진국에 많은 투자를 하여 '중국발전론(중국식 현대화)' 모델을 심겠다는 야심도 중국이 기대했던 만큼 큰 효과를 올리지 못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동남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 여러 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중국은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대만문제가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닌 국제정치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대만과 그동안 경제협력이 활발했던 푸젠성, 광둥성 등의 동남부 연안 경제발전지역의 경기회복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쪽 현지에서 근무하는 지인들에 따르면, 활용되지 않는 공장 시설이 다른 업종으로 임대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물론 공장이 돌아갈지라도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제시한 목표치인 5%를 달성하더라도 그 수치가 실제로 5%가 된 건지는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국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미국과 세계 경제를 같이 봐야 한다. 이런 이유로 현재 중국이 제시한 목표치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의 발전방식 중 하나인 가난한 '제3세계'국가에 투자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중국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면 중국적으로 중국의 국내외 산업 전반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이석: 말씀 감사하다. 중국의 경제상황을 비롯하여 시진핑 3기 체제에서 한반도 상황을 조망하고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과 대응을 안고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병광: 중국의 사회 발전이나 경제발전을 이야기할 때, 주목해 봐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다. 바로 제20차 당대회에서 등장한 용어인 '중국식 현대화'이다. 이번 양회에서도 중국식 현대화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중국 특색적', '시진핑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 사상' 등을 자주 표현했으나 이제 이런 중국 특색적이 아니라 '중국식 현대화' 등 몇몇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일반인들은 현대화를 떠올리면 서구식 현대화와 등가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시진핑의 중국이 말하는 중국식 현대화란 중국이 걸어가는 길을 중국식 현대화의 길로 규정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 중국식 현대화의 모범을 보여주어 이를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식 현대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 또는 경제 진출과도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재우: 제 주장은 간단명료하다. 이제 전략적 모호성 시대는 끝났고 전략적 명확성 시대가 도래했다. 정말로 명확한 전략적 입장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다양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챙길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우선 포스트 중국의 대안 시장도 물색할 것이고, 다음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구상에서 우리가 우리만의 입지, 발언권, 지분 등을 더 많이 챙겨 나갈 수 있는 방법 역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병광: 중국은 남북한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 시기 사드사태 발생 이전만 해도 한중관계는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는 북한이 중국을 거부하는 스탠스를 취하며, 핵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8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후로는 북중관계가 다시 정상화 단계로 복원하려는 흐름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북중간 고위급 교류가 전무했지만, 지금 코로나19가 해소되는 상황에서 이르면 올해부터 북중간에도 고위급 교류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남북을 동시에 잘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이익이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문제 관리의 어려움은 계속 증대할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사안과 이슈에 따라서 설득, 유인, 압박, 보복 기조를 아주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 한반도와 관련해서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다.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중국 외교 사령탑의 생각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열리는 중국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번에 친강이 14개 질문에 대해 2시간 동안 답변을 했다. 14개의 질문은 중국인 기자와 외신기자들에게 절반씩 질문권이 주어지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전과 달리 한국인 기자에게 질문권이 없었다. 즉, 의도적으로 한반도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고 본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핵문제나 대북제재와 같은 한반도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보았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미중간에 한반도 이슈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부분적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때 협력 사안으로 등장했던 것이 기후변화와 한반도 북핵문제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투 플러스 투 대화에서 양국 간에 북핵문제나 한반도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 이후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회담 및 화상회담은 물론 지난 G20 발리 회담에서 한반도 이슈나 북핵문제를 미중 정상이 언급했다는 뉴스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미중대립이 격화되면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이슈가 갈수록 주변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중간에 협력 구조가 와해되는 것을 반영한다. 여러 상황이 중첩적으로 얽혀 이번 양회에서 중일관계, 중러관계, 미중관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한반도 이슈는 제외된 것이다. 중국의 외교전략, 외교 행태 또는 주변국 외교에서 한중관계,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가 계속 소외되는 상태로 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현재 드러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조만간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 대통령이 먼저 방중할 가능성은 없다는 기조가 확고한 듯하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먼저 성사되어야 할 텐데, 그 시점은 중국 입장에서 한중관계 관리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감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필요성에 따라서 한국에 오는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가능성 역시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김진호: 한국의 미래를 위해 탁월한 외교적 인재를 길러 내고 활용하는 우리 외교 자산의 업그레이드를 강조하고 싶다. 대만이 미국에 사랑을 받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 인물의 역할도 매우 크다. 대만에 샤오메이친(蕭美琴)이라는, 혼혈아 출신으로 현재 중화민국 주미대표부 대표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이 인물은 과거 첸수이벤 대만 총통의 통역 역할을 담당할 자로서, 영어 실력은 네이티브 스피커이면서 미국식 사고를 함으로써 미국인이 원하는 걸 빨리 간파하여 미국 의회에서의 로비를 효과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그는 대만의 부총통 후보 중 하나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리 역시도 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high talented'된 정치, 경제, 외교 전문가들을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최일선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려운 국제현실에 처한 한국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소통 및 설득으로 국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석: 오늘 좌담회를 통해 중국의 제3기 시진핑 체제와 국제질서 그리고 한반도라는 주제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보인다. 앞으로 KDI 북한경제연구실은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논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번 좌담회를 마치겠다.